2013년도 정읍학 연구회 창립식 및 창립기념 학술대회

정읍학 연구회 출범 기념 학술대회

◇ 일시: 2013년 11월 22일(금요일) 13:00~18:00
◇ 장소: 정읍YMCA 1층 세미나실
◇ 주최 및 주관 : 정읍학연구회 준비위원회

일제강점기 정읍지역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38]

김재영(정읍역사문화연구소장)

[목차]

Ⅰ. 머리말
Ⅱ. 1920년대 정읍지역 사회단체의 활동과 사회운동
Ⅲ. 신종교 보천교의 민족운동
Ⅳ. 이동환의 6·10만세 운동
Ⅴ. 맺음말

Ⅰ. 머리말

최근 시·군 단위을 중심으로 한 일제하의 민족운동사와 사회운동사[39]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전북 지역에서의 기존 연구자들의 관심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역운동사 연구 방법론이나 방향 등을 제대로 찾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시험론적인 글이 일찍이 박찬승(한양대)에 의해 발표되었다. 그간의 지역운동사 연구들이 대부분 어느 한 부문의 운동만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각 부문 간의 운동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40]

이러한 저간의 연구경향과는 좀 더 다른 입장에서 정읍지역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관련 단체들의 창립과 활동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이들 단체의 활동에 참여하였던 인물들의 계층과 성향이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이다. 이를 통해 정읍지역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이 갖는 특징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지역별 연구는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38) 이 글은 그간 필자가 연구하고 정리한 『한국민족운동사와 정읍』 이라는 글 가운데 일부를 보완하고 지면 관계상 일부를 축약한 것임(근간).

39) 1920년대 초 '사회운동'이라는 단어를 처음 쓴 것은 『개벽』2호에 실린 이돈화의 「최근 조선 사회운동의 二三」의 글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 글에서는 조선교육회, 조선학생대회, 조선노동공제회 등을 소개하면서 이들을 모두 사회운동의 범주에 넣어 불렀다. 1923년에는 민족주의 계열의 운동을 '민족운동'이라는 용어로 지칭하는 경우가 일반화되어 갔다. 그러나 사회운동은 정확한 개념이 규정된 용어는 아니었다. 아마도 사회운동은 사회주의운동, 노동운동보다 더 범위가 넓은 운동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사회운동사를 정리한 글을 보면 노동운동, 농민운동, 사상운동, 청년운동, 형평운동, 그리고 심지어 학생운동까지 포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1926년 정초 『동아일보』에 실린 「조선사회운동개관-을축년 총 수확기」의 필자 성산학인(星山學人)은 사회운동의 개념을 '무산계급의 운동'이라고 규정하고 무산노동자, 무산농민은 사회운동의 중심이자 원동력이라고 말했는데 이 규정이 가장 정확한 개념규정인 것으로 보인다(박찬승, 「식민지 조선 사회운동의 발전과 국제적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26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6, 22~23쪽). 여기서는 농민운동에서 여성운동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고 정읍지역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을 정리했다

40) 박찬승, 「일제하 나주지역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한국근현대지역운동사』2, 여강, 1993.

사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연구 방법도 함께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Ⅱ. 1920년대 정읍지역 사회단체의 활동과 사회운동

1. 청년운동

전라북도의 청년운동에 관한 연구는 일찍이 조찬석에 의해 그 운동단체의 개황과 활동이 일부 밝혀진 바 있다. 이 글에 의하면, 전라북도 15개 부·군 전역에서 모두 252개의 청년회가 조직되었으며, 가장 활발했던 곳은 전주와 익산, 군산이었으며 그 다음이 김제였다. 개체 단체별로는 금산청년회, 군산기독청년회, 김제청년회 등이 가장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나타났다.[41]

이에 대한 후속연구로 정읍지역의 청년운동에 주목한 연구는 송만오의 「1920년대 정읍지역 청년회의 조직과 활동」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42] 그의 연구에 의하면,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20년대 초부터 1927년 사이 정읍에는 고부청년회를 비롯한 태인청년회, 정읍청년회 등 모두 11개(*는 필자 추가)의 청년회가 있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청년단체의 조직과 청년회의 활동 추이까지 정리하여 지역사 연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천도교청년회와 보천교청년단과 같은 전국 단위의 종교청년단체 조직이 빠져있을 뿐만 아니라[43] 정읍청년회의 차경삼과 박홍규와 같은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들의 행적이 누락되어 있다.

〈표1〉 1920년대 정읍지역 청년회 현황

청년회명	설립시기	주요 인물
古阜靑年會	1920년 초	殷熙淳, 殷致宰, 殷彦基, 殷熙相, 殷必秀 등
泰仁靑年會	1920년 6월	柴在鈺, 金鎭永, 宋榮根, 宋直相, 金大坤, 鄭邦謨 등
井邑靑年會	1920년 7월	車敬三, 朴種奎, 朴基敦, 朴治奎, 洪迥根, 朴二湧 등
詩山靑年會	1920년	金東柱, 劉載翊, 宋滄
천도교청년회 정읍지회*	1922년?	金炳璃(회장), 회원 수 미상.
所聲靑年會	1923년	金京鉉, 柳元哲, 韓光鎬, 朴諄相, 韓台鎬, 李相滿 등
德安靑年會	1923년	확인되지 않음[44]
普天敎靑年團*	1923.6	李奉振/16세 이상, 30세 이하의 청소년 30명
互扶靑年會	1925년	李喜穆, 金煌 李汝安
五成靑年會	1926년 이전	朴辛奎, 柴重錫, 趙紀贊, 吳寅泳, 金東煥, 李祺錫
笠岩靑年會	1927년	柳然基,[45] 邊昌鎬
山外靑年會	미상	殷成天, 宋旺起
新泰仁靑年會	미상	

41) 조찬석, 「1920년대 전라북도 지방의 청년운동」, 『논문집』제22권 2호, 1988, 51~52쪽.
42) 송만오, 「1920년대 정읍지역 청년회의 조직과 활동」, 『전북사학』제28집, 전북사학회, 2006.
43) 이외에 정읍청년동맹 지부로 개편된 이후의 상황을 제외하고도 화호청년회(『동아일보』, 1926년 8월 17일), 옹동면수양청년회(『동아일보』, 1926년 10월 31일, 고부학우회(『동아일보』, 1927년 8월 24일) 등이 있었다.
44) 덕안리에도 전통적으로 향리 출신인 경주 이씨들의 동족부락이 45호가 있었던 만큼 덕안청년회는 행주 은씨들이 조직한 고부청년회와 성격상 유사하거나 이에 맞서는 단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45) 북면 승부리 출신으로 1927년 7월부터 1933년 5월까지 동아일보 정읍지국 기자로 활동한 언론인이었다. 신

*출전: 『동아일보』, 『중외일보』, 『시대일보』, 전라북도경찰국, 『보천교 일반』, 1926년 6월, 155~156쪽; 조규태, 「1920년대 천도교의 문화운동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논문, 1999, 65쪽, 72쪽.

이와 같이 사실 관계에 있어 보다 명확한 규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들 청년회를 주도한 인물들의 계층과 성향이 일부를 제외하고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읍지역 청년회의 실상을 온전하게 드러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필자는 일간지에 보도된 기사와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청년회의 활동과 여기에 관여하였던 주도 인물들의 계층과 성향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정읍 지역 내에서 설립 시기가 가장 앞섰던 것은 1920년 초에 조직된 고부청년회였다. 1920년 8월 20일 제3회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고부청년회 임원 중 중요 인물을 살펴보면, 회장에 은희순(殷熙淳), 부회장에 은치재(殷致宰), 총무에 은언기(殷彦基), 덕육부장에 은희상(殷熙相),[46] 체육부장에 은필수(殷必秀) 등이 임명되었다.[47] 이들은 모두 행주 은씨들로 전통적으로 고부의 향리집안 출신 들이었다.

이로 보아, 강점 이전까지는 지역 명망가 층을 중심으로 한 자치적 지역운영이 관철되고 있었으나, 강점 이후에는 주로 읍내에 거주하면서 실무행정 등에 종사한 향리층을 잇는 신흥유력자층이 사회운동의 중심세력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48]

따라서 고부청년회는 지역의 행정을 좌우했던 행주 은씨들의 친목단체이자 동계(洞契)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 내용을 전하는 일간지의 기사가 많지 않다. 다만, 이들의 사회활동 일부와 청년회 간 체육행사가 일부 보도되고 있다.

1920년 9월 13일 고부에서 호열자(虎列剌)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불과 3~4일 만에 7~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고부청년회에서는 방역대와 구호반을 편성하고 경찰의 협조를 얻어 방역과 환자 치료에 전력하였다. 한편 일반에게는 백미와 식료품을 지급하고, 사망자에게는 장례 준비를 주선하는 등 구호활동에 앞장섰다.[49] 이듬해인 1921년 6월 12일에는 줄포경신청년회 체육부 주최로 정구 시합이 있었다. 이와 같은 체육활동은 대부분의 청년회에서 전개했던 주요 사업 중 하나였다.

정읍에서 고부청년회 다음으로 설립된 것이 태인청년회였다. 보통 청년회는 설립 2~3개월 전에 지역 내 유지들로 구성된 '청년회기성회' 또는 '발기인회'를 조직하고 청년회의 설립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보통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운동회나 야유회 또는 강연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여기에 수 백 명의 군중을 집합시킨 상태에서 군수나 공립학교장, 지방금융조합장 등의 유력인사들을 출석케 하여 청년회의 창립을 선언했다.[50] 태인청년회의 경우도

간회에서 다시 언급함.

46) 은희상(1893~1973)은 고부 남복리 출신으로 일찍이 고부농업학교(간이농업학교 1912~1919)를 졸업하고 한 때 관계에 나갔다가 사법서사로 정읍소방대장을 지냈다. 1928년경에는 박홍규(1894~1970)와 함께 정읍시 시기동에 예기조합을 설립하고 국악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광복 후 정읍제재회사를 경영하며 1947년 정읍상공회의소를 창설하여 초대회장(~4대)을 지냈다. 1948년 예기조합이 국악원으로 개칭되어 권일상이 원장을 맡기까지 무려 20여 년 동안 예기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정읍지역 국악인 발굴과 공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최현식, 『신편 정주정읍 인물지』, 정읍문화원, 1990, 403쪽; 황미연, 「정읍국악의 위치와 특징」, 『전북의 역사문물전』Ⅵ, 국립전주박물관, 2006, 212쪽).

47) 『동아일보』, 1920년 8월 20일.

48) 김익한은 일찍이 "지역명망가는 역사적으로 조선시대의 재지사족을 잇는 계층이라면, 신흥유력자층은 향리층을 잇는 사회계층"이라고 개념화한 바 있다(「일제하 한국 농촌사회운동과 지역 명망가」, 『한국문화』제17집, 1996, 288쪽).

49) 『동아일보』, 1920년 9월 23일.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태인청년회는 1920년 6월 27일 태인공립보통학교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100여 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송직상(宋直相)의 개회사와 취지 설명이 있은 후, 내빈 측에서 병송(竝松) 보통학교장의 축사가 있었다. 회장에 정방모(鄭邦謨), 부회장에 송직상, 총무에 김진수가 선임되었으며, 당일 성금만 1,063원이 모아졌다.[51] 이는 당시로서는 대단히 큰 액수였으며, 그만큼 청년회에 참여한 인사들의 경제력이 탄탄했음을 말해준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920년 원산에서의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조선인은 1원 3~40전이었으며, 일본인은 1원 6~70전이었다. 이것도 경기 침체로 임금이 점차 하락하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1,063원은 실로 거액이 아닐 수 없다.[52] 1920년 8월 2일 임시총회에서는 '덕육의 필요'와 '지식은 인생의 생사와 같다.'라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사회의 사공이 되자.'는 열변도 있었다. 이날 조직 개편에 들어가 회장과 부회장, 총무, 의사부장, 지육부장 겸 편집부장, 덕육부장, 체육부장, 사교부장 등을 선임하였다.[53] 이러한 총회의 내용과 조직구성으로 볼 때, 고부와 태인청년회는 지역의 유지들로 구성된 사회단체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단체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이 청년운동 초기는 대부분 청년 자신의 수양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다만 태인청년회 제10회 정기총회에서 유학생 환영 강연 개최, 몰핀 환자 박멸을 위한 박멸대를 조직하여 실행위원까지 선정한 점, 1927년 2월 25일부터 부녀 야학을 개최한 점 등은 이전보다 진전된 활동이라 할 수 있다.[54] 조직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이미 송만오의 논문에 언급된 바와 같이 태인청년회에서 활동하던 자들 중 상당수가 태인 지방의 3·1운동에 관여한 자들과 혈연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태인 지방의 3·1운동에 가담하여 징역형을 언도 받은 송진상(宋鎭相), 송근상(宋根相), 송문상(宋文相) 그리고 김현곤(金賢坤), 김부곤(金富坤), 김달곤(金達坤)과 태인청년회의 송직상(宋直相), 송건상(宋建相), 송헌상(宋憲相) 그리고 김대곤(金大坤), 김정곤(金禎坤)은 항렬이 같은 집안사람이기 때문이다.[55]

이로보아, 정읍군의 사회 경제활동은 여전히 구읍치였던 태인과 고부가 중심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태인과 고부가 정읍에 편입되어 1개 면으로 전락했으나, 생활권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정읍청년회가 이들 지역보다 늦게 창립되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정읍청년회는 이미 조직된 '청년구락부'를 1920년 7월 26일 청년회로 이름을 개명한 것이었다. 조직으로 지체(知體) 2부를 두었으며, 회장에 차경삼(車敬三), 부회장에 박흥규(朴興奎), 총무에 박장규(朴壯奎)가 선임되었다.[56]

이들의 사회활동을 살펴보면, 회장인 차경삼은 본시 평북 출신으로 1917년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정읍으로 내려와 정읍의원을 설립하였다. 이후 정읍유치원장, 읍회의원, 군농회 의원, 산업조합 감사, 초성금융조합 평의원, 학무위원 및 학부형 회장, 소방조합 고문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이어서 정읍전기주식회사의 감사를 지내기도 했으며, 1947년 12월에는 정읍야간중학원을 설립하고, 초대원장으로 취임하기도 하였다.[57]

---

50) 金森襄作, 「朝鮮靑年會運動史」, 『朝鮮學報』제85집, 朝鮮學會, 1977, 113~114쪽; 『동아일보』, 1925년 9월 16일.
51) 『동아일보』, 1920년 7월 2일.
52) 『동아일보』, 1920년 6월 6일.
53) 『동아일보』, 1920년 8월 6일.
54) 『동아일보』, 1926년 8월 15일, 1927년 2월 12일.
55) 태인 지방의 3·1운동 과정 및 운동에 관여한 자들에 대해서는 『정읍시사』, 정읍시, 2003, 486쪽~489쪽을 참고할 것.
56) 『동아일보』, 1920년 8월 2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읍회의원과 군농회, 금융조합 등의 그의 이력이다.

1925년 이후, 일제는 조선을 수탈하기 위해 농촌에 3단체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것이 바로 군농회와 산업조합, 금융조합이었다.[58] 특히 금융조합은 식산은행의 보조기관으로 중농 이상의 부자, 양반들의 고리대 자금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이들은 조합에서 저리로 빌려온 돈을 고리로 빈민에게 다시 빌려주어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저리자금의 융자를 통해 토지를 매입하였다. 이는 대다수의 한국농민을 근대적인 금융시장에서 전적으로 배제시키면서, 지주의 고리대가 융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다.[59] 당시 조선식산은행은 일본 금융시장에서 자금 공급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의 행정적인 지원 하에 한국의 금융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60] 그가 역임했던 금융조합 평의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가운데 선출되었으며, 금융조합의 제반사항에 대해 조합장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조합의 업무를 보좌하였다. 운영의 실권은 물론 이사에게 집중되어 있었으나, 평의원들도 부분적으로 운영에 참여하였으며, 조합운영 전반에 관해서는 총독부와 지방청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시행해야만 하였다.[61]

한편 부회장으로 선임된 박홍규는 중추원 참의를 지낸 인물이었다. 일찍이 정읍향교 직월(直月)로 활동하였으며, 정읍전기주식회사 사장, 정읍면장, 조선박람평의원, 대례기념장,[62] 동아일보 정읍지국 고문, 관선도평의회원을 역임하였으며, 한때는 유치원을 설립하여 원장으로 재임하였다. 또 초성금융조합장, 향교장의, 소작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63]

이 같은 정황으로 볼 때, 정읍청년회 역시 출발은 고부, 태인청년회와 마찬가지로 지역유지 모임의 성격이 짙은 것이었다. 또한 차경삼과 박홍규와 같은 정읍청년회 간부로서의 활동과 그 이후의 이력으로 볼 때, 그들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지역유력자들이 일제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민족·사회운동에 참여하면서 일제에 저항하고자 했던 이른바 '저항과 협력'이 중층적으로 드러나게 됨을 정읍지역에서도 확인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서 한 가지 정읍청년회의 활동 가운데 두드러지는 것이 노동야학이다. 노동야학은 3·1운동 이후인 1920년대가 전성기이며, 1930년대까지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속되었다. 노동야학은 1920년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된 공립보통학교에 대항하면서 설립이 증가하였는데,[64] 정읍은 지역 유지청년들의 협조로 청년회관을 수리하고 1922년 8월 1일부터 야학을 실시하여 70여 명을 수용하고 있었다. 당시 임원은 회장 김기동(金箕東), 부회장 박홍규(朴興奎), 총무 박석규(朴碩奎), 간사 김명석(金明錫), 김종태(金鍾泰), 김회진(金會珍), 서기 박장규(朴壯奎), 이형우(李炯雨), 평의원 차경삼(車敬三), 임대현(任大鉉), 박만규(朴萬奎), 김종선(金鍾善), 최중진(崔重珍), 이익겸(李益兼) 등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들이 바로 김기동, 박석규, 차경삼, 김회진 그리고 최중진과 이익겸이다.[65] 김기동

57) 장봉선, 『정읍군지』, 이로재, 1936, 303쪽.
58) 문정창, 『일본군국 조선강점36년사』, 백문당, 1966, 32~33쪽.
59) 이만규, 「일제하 초기 한국사회구조 연구-1910~1920년대 식민정책과 관련하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부속대학원 석사논문, 1989, 35쪽.
60) 이동언, 「일제하 조선금융조합의 설립과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6집,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2, 275쪽.
61) 이동언, 앞의 논문, 289쪽.
62) 일제의 대례기념장은 두 차례 있었다. 명치천황의 뒤를 이은 대정천황의 즉위를 기념한 1915년의 기념장과 대정 사후 소화천황의 즉위를 기념한 1928년의 기념장이 그것이다(동선희, 『일제하 조선인 도평의회·도회의원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논문, 2006, 151쪽).
63) 장봉선, 앞의 책, 303쪽; 동선희, 위의 박사논문, 320쪽.
64) 강동진, 「일제 지배하의 노동야학」, 『역사학보』제46집, 역사학회, 1970, 6쪽.
65) 『동아일보』, 1922년 8월 18일.

은 박석규, 차경삼과 함께 정읍전기회사를 설립한 주역이었다.[66] 박석규(1893~1950)는 일찍이 일본 명치대학을 졸업하고 김규진(金圭鎭/海崗)에 사사하여 글씨를 잘 쓰고 사군자에도 능한 인물이었다.[67] 조선노동공제회 정읍지회장이었으며,[68] 1928년부터 1932년까지 정읍면장으로 있었다. 면장 장기 근속자로 일제로부터 주임관 대우를 받기도 하였다. 1930년 민선 전북 도평의원이었다.[69] 박석규를 비롯한 72명이 신사설립을 주도하여 1931년 12월 18일 일제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이 같은 행위로 정치 경제적으로 각종 특혜를 받았을 것이다.[70] 한편 최중진은 호남지방 최초의 목사이자, 형평사 정읍분사의 고문으로 활동하였으며, 이익겸은 3·1운동 당시 항일운동의 전력이 있는 인물로 최중진과 함께 신간회 정읍지회 창립 준비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김희진은 청년동맹 정읍지부의 전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노동야학에 모든 열정을 쏟아 붓고 있었다.[71] 당시 야학을 열고 있었지만 지방 청년인사들의 무관심과 경영난으로 인해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었다. 이에 제때에 취학하지 못한 무산 자제들을 위해 김희진 단독으로 교육에 종사하고 있었다.[72] 당시 노동야학은 대부분 무보수 봉사였다. 교육과정은 조선어, 일어, 산술, 간단한 한문 정도의 수준[73]이었기 때문에 정읍 노동야학도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수업 연한은 보통 1년 정도였다.

이 같은 구성인물로 보아 정읍청년회는 이익겸과 같은 민족주의자, 차경삼, 박홍규, 박석규와 같은 지역의 유력자들이 혼재한 단체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밖에 정읍청년회의 활동으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정읍지국 후원 아래 열린 남조선축구대회, 청년회 주최의 음악회가 열리기도 하였다.[74]

1928년 5월 12일에는 정읍 관내 청년단체를 통합하기 위한 정읍청년동맹 창립대회가 태인 만화루에서 열렸다. 그러나 정읍청년동맹은 출발부터 순조롭지 못하였다. 그것은 청년동맹이 다른 지역의 경우처럼 사회주의 성향을 지닌 단체로 흐를 수 있다는 것과 함께 저들의 활동영역이 시국문제까지 개입할지도 모른다는 경찰의 우려 때문이었다.[75] 이러한 가운데 1928년 7월 15일에는 조선청년운동과 맥락을 같이 하기 위해 정읍청년회를 해체하고 정읍청년동맹 정읍지부로 전환하였다.[76]

지금까지 서술한 청년회는 지역 유지들로 구성된 민족부르주아지 운동의 성격이 짙은 단체로 볼 수 있으나, 정읍청년동맹 결성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산외청년회[77]는 상당히 좌경화된 조직이었다.

이 단체의 창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인물이 은성천이다. 그는 1927년

---

66) 1923년 9월 20일에 설립된 이 회사는 전등, 전력, 전열의 공급, 전기 기구의 판매 및 이에 부대하는 업무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1925년판). 총 자본금 10만원이었으며, 45kw의 전력을 생산하였다. 1925년 당시 전라북도에는 군산전기주식회사, 전북전기주식회사, 남원전기주식회사가 있었다(全羅北道, 『全羅北道要覽』, 1925, 28쪽).
67) 최현식, 『신편정읍인물지』, 정읍문화원, 2007, 331쪽.
68)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14, 1978, 114쪽.
69) 동선희, 『일제하 조선인 도평의회·도회의원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논문, 2006, 108쪽.
70) 윤선자, 「일제의 신사 설립과 조선인의 신사 인식」, 『역사학연구』 42집, 2011.5, 125쪽.
71) 동선희, 위의 논문, 108쪽; 『중외일보』, 1928년 7월 22일.
72) 『신민』, 1928년 5월호.
73) 강동진, 앞의 글, 27쪽.
74) 『동아일보』, 1926년 7월 28일; 11월 13일
75) 『동아일보』, 1928년 5월 16일; 송만오, 앞의 논문, 103~104쪽.
76) 『동아일보』, 1928년 7월 18일.
77) 『동아일보』, 1928년 5월 9일.

3월 유지 장기환(張煥箕)과 함께'신명회'(新明會)를 창립하고,[78] 1928년 동아일보 태인지국 기자를 역임한 인물이었다.[79] 1928년 4월에는 산외면 지역 사상단체인 신명회를 해소(解消)하고 고용주(高庸柱), 정헌교(鄭憲喬), 송수격(宋洙格) 등과 함께'산외농민조합'을 결성하였다. 이들은 창립과 동시에"농민 대중의 정치적·경제적·민족적 이익의 획득, 의식적 교양과 훈련, 공고한 조직의 완성"등의 강령을 채택[80]함으로써 사회주의 단체임을 분명히 했다. 동년 5월에는 청총 정읍동맹 창립준비위원으로 활동하다가.[81]'전북공산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검거되었다,[82] 1929년 3월 23일에는 경찰의 가택 수색 결과 불온문서가 발견되었다 하여 정읍경찰서에 구속되었으며,[83] 1931년 11월 초에는 이평, 산외, 감곡, 정토, 용북 등 5개 면에서 모종의 비밀결사를 조직했다는 혐의로 청년 30여 명과 함께 다시 검거된 바 있다.[84] 이로보아 산외청년회는 정읍지역 내에서는 보기 드문 소위 사회주의 노선을 표방한 청년단체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밖에도 호남선 철도의 개통으로 발달된 신태인에서도 청년회가 조직된 것으로 보인다. 창립 시기가 분명치 않으나, 태인청년회의 설립 멤버였던 송직상과 김진영이 청년구락부를 조직하기 위해 발기인[85]으로 나섰다는 일간지의 보도를 볼 때 그러하다.

2. 노동·농민운동

우리나라에서 전국적 규모의 근대 노동단체로 조직된 것이 1920년 4월에 창립된 조선노동공제회다. 조선노동공제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자 잡지인「공제」와「노동공제회보」를 발행했으며, 노동자들에게 노동의 가치, 노동의 신성성, 노동의 존엄성, 노동문제의 이론, 세계의 노동운동 등을 가르쳐주었고, 민족주의 사상과 함께 사회주의 사상까지 가르쳐 주었다. 노동공제회의 이러한 계몽과 교육운동은 노동자들의 자부심과 긍지, 의식, 지식, 품성을 높여 노동자들의 민족적 계급적 성열(成熱)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의미가 있다.[86]

물론 조선노동공제회 이전에도 이미 1906년경 부산·목포·인천 등 개항장과 대도시에 단초적인 조직이 있었으나, 대부분 노동자의 상호 부조단체에 불과하여 노동단체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너무 많았다. 조선노동공제회는 창립 후 전국에 46개 지회를 설립하고 약 6만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을 회원으로 조직하였다.[87]

이 가운데, 조선노동공제회 정읍지회는 1920년 8월 27일 백양사(白羊社) 포교당에서 발회식을 갖고 창립되었다. 당시 20여개의 지회 가운데, 평양 500명, 대구 540명, 예산 200명, 정읍 1,500명, 광주 300명, 청진 300명, 인천 800명, 안악 138명, 안동 1,4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정읍은 창립 시기와 회원 보유에서 상당히 앞서가던 지역이었다.

---

78) 『동아일보』, 1927년 4월 9일.
79) 『동아일보』, 1928년 11월 3일.
80) 원용찬, 『일제하 전북의 농업 수탈사』, 신아출판사, 2004, 181쪽.
81) 『중외일보』, 1928년 5월 9일.
82) 『중외일보』, 1929년 5월 7일. 은성천은 전라북도 정읍군 이평면 두지리 721번지에 본적을, 정읍군 산외면 평사리 375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 전북 공산당 사건으로 피체될 당시 25세였다(전북공산당 예심결정 전문, 『조선일보』, 1930년 12월 18일).
83) 『동아일보』, 1929년 3월 29일.
84) 『동아일보』, 1932년 2월 12일.
85) 『동아일보』, 1927년 10월 3일.
86) 신용하, 「조선노동공제회의 창립과 노동운동」, 『한국의 사회신분과 사회계층』, 문학과지성사, 1986, 196쪽.
87) 신용하, 위의 글, 71쪽.

이 날 발회식에서는 서울 본회 회장 박중화(朴重華)의 열렬한 축사와 본회 총간사 박이규(朴珥圭)의 주지(主旨) 설명이 있은 다음,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출하였다.[88]

지회장(김정기), 부회장(박석규), 총간사(최중진), 의사장(박홍규), 간사 50인, 의사 20인

임원 가운데 박석규와 박홍규는 정읍청년회 총무와 부회장이었으며, 최중진은 평의원으로 활동한 인물이었다. 이러한 인적구성을 바탕으로 정읍지회는 '소작인 운동'과 '소비조합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조선노동공제회 지회 중에서 제일 먼저 소작인 운동을 전개하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노동단체로는 1926년 2월 27일'정읍기공동맹'이 창립되었으며,[89] 3월 10일에는'삼각노동동맹'이 조직되었다.[90] 그러나 정읍지역에 노동조합연합체가 조직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것 같지는 않다. 1920년대 노동운동은 마르크스 사상의 유입에 따른 공산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았으며, 사회운동으로서 민족해방운동과 연계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읍은 노농운동 관련 사회주의 사상단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노동운동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농민운동[91]은 노동운동에 비해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정읍은 일본인 지주들이 많아 총독부와 일제 경찰의 비호 속에 농민에 대한 삼엄한 경계와 탄압이 가해지고 있었다. 실제로 정읍에서 전개된 농민운동 대부분이 한국인 지주 관할 농장에서 발생했다고 하는 것이 이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1925년 4월 10일 지주 민대식(閔大植)이 정읍군 태인면 소작인들의 소작권을 박탈하자 김학규 외 수명의 소작인이 이 사건을 태인노농회에 의뢰하였다. 이에 태인노농회는 경성노동총연맹과 제휴하여 지주에 대한 소작권 이동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음(舍音)이 중상을 입었으며, 소작인 일부는 경성에 있는 지주와 직접 교섭하였다. 한편 정읍경찰서는 종로경찰서를 통해 사상단체의 교섭에 응하지 않도록 지주에게 경고하였다. 한편으로는 신·구소작인 및 사음에 대해서는 상호 양보하고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였다. 이에 구소작인은 신소작인으로부터 소작지 일부를 반환받았으며 사음에 사죄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다.[92]

1925년 10월 1일에는 용북면 화호리 화호노동친목회[93]의 김복수(金福洙), 구성일(具成一) 등이 부안군 백산면 원천리의 소작동우회와 제휴[94]하여 직접 정읍 지주 6인(김금동 외 5인)에 대해 소작료 인하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때 정읍경찰서는 소작인 2명을 검거하고 지주에 대해서는 경고와 협조를 요청하였다.[95]

이와 같이 정읍은 1920년대 중반까지 한국인 지주를 상대로 소작권 이동과 소작료 인하운

88) 『동아일보』, 1920년 9월 2일; 신용하, 위의 글, 106쪽; 金森襄作, 「朝鮮勞動共濟會-果たして朝鮮最初の勞動團體であったか-」, 『朝鮮史叢』, 1980, 136쪽.
89) 『조선일보』, 1926년 3월 2일.
90) 『조선일보』, 1926년 3월 13일.
91) 농민운동은 지수걸의 『일제하 농민조합운동 연구』, 역사비평사, 1993, 470~471쪽 참고.
92) 全羅北道, 『高等警察ニ關スル管內概況』, 1926, 15~16쪽; 원용찬, 『일제하 전북의 농업수탈사』, 신아출판사, 2004, 168쪽.
93) 화호노동친목회는 1922년 12월 22일, 회원 간 상부상조(相扶相助), 애경상문(哀慶相聞), 질병상구(疾病相救) 등을 표방하면서 조직되었으며, 1923년 10월 2일 화호노농친목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동아일보』, 1923년 1월 26일; 홍영기, 『1920년대 전북지역 농민운동』, 한국학술정보주식회사, 2006, 212쪽).
94) 정읍군 화호리는 부안군 원천리 지역과 인접해 있어 쉽게 연대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1926년 3월 10일 백산노동친목회와 함께 삼각노농연맹을 결성하였다(『동아일보』, 1928년 4월 10일).
95) 全羅北道, 『高等警察ニ關スル管內概況』, 1926, 17~18쪽; 원용찬, 위의 책, 169쪽.

동을 전개하였으나, 1920년대 후반부터는 일인농장을 배경으로 격렬한 소작쟁의를 전개하는 것으로 그 양상이 바뀐다. 1927년 4월 신태인 화호의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일본인 이민촌에서 소작쟁의가 있었고,[96] 역시 화호에 있었던 웅본농장에서도 1930년대에 소작쟁의가 4차례나 발생하였다. 당시 웅본농장의 소유지는 5개군(정읍, 김제, 옥구, 익산, 부안군) 26개면에 걸쳐 있었다. 소유지 대부분이 1930년경부터 수리조합 사업에 수반한 구획정리를 통해 고생산력지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가 소유한 개정본장, 지경지장, 대야지장, 화호지장 등 1본장 3지장은 군산항으로의 철도교통의 요지에 소재하고, 일본으로 향하는 쌀 이출의 거점이기도 했다.[97] 웅본은 토지소유 전국 7위에 전라북도에서는 동척 다음으로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 울본농장은 일제강점기 농업 경영의 선진성과 수탈성이 가장 강했다. 주변 일본인 농장 중에서 소작료가 가장 높았다. 1935년 일본인 신문『군산일보』조차 '다작하여 다취하는 주의'이지만 '다취가 심하다'고 지적할 정도였으며, 1937년 전라북도의 현직 일본인 소작관조차 '지주 본위의 시책'이라고 비난할 만큼 수탈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관변 측 자료에는 "어려움에 부딪혀도 굴하지 않을 재계의 용사, 견인불발, 학식, 체험, 담력의 삼박자를 두루 갖춘 사람이다."라고 평가했다.[98]

특히 증산 목표치를 자의적으로 정한 후 농사도 짓기 전에 소작계약을 체결하고 미리 소작료부터 올리는 방식을 취하였다. 단보 당 수확고가 이미 4~4.5석에 달하여 추가적인 증산이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15~20%를 증산할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추어 소작료를 올리는 것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 소작관은 1934년 소작계약 갱신 때 화호지장에서 25% 증수 목표를 세우고 소작료도 올렸으나 그에 미달하여 그해 가을 소작료 인하 및 소작료 불납동맹을 결성하며 대규모 투쟁을 벌였다. 화호지장 쟁의는 1937년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웅본농장의 사업장이 많았음에도 유독 화호지장에서 대규모 소작쟁의가 장기간 지속된 이유는 신태인 지역의 경우 일찍부터 각종 사상단체와 연결된 농민운동, 노동운동 단체가 활동해 온 때문이다. 예컨대 신태인에는 1923년과 1924년에 조선소작인상조회 3군지회와 신태인노동조합이 활동하였고, 1925년에는 부흥단, 1927년에는 구매조합이 각각 창립되었다. 1927년에는 조선공산당과도 연계를 가진 신태인청년회와 화호농맹위원회가 활동 중이었고 그들의 주도로 신간회 화호지회가 설치되었다. 특히 1927년 10월에 신간회 화호지회 조사연구부장이 된 김영선(金永先)은 화호지장 소작쟁의를 주도한 인물의 하나였다.[99]

1933년에는 개정본장 구역인 옥구군 옥산면의 소작인 200명이 소작료 인상에 항의하여 쟁의를 일으켰다. 소작인에 대한 대우는 우마보다도 못해서 농장 지휘에 조금이라도 불응하거나 성적이 다소 불량하면 구타 욕설이 다반사였다.

1934년 11월 30일 웅본은 20~30%의 소작료를 인상하였다. 이에 300여 명의 소작인들이 납입고지서를 농장 측에 반송하고, 소작료 인하를 요구하며 인상 부분 불납을 결의하였다.[100] 당시 소작인들의 요구는 대부분 경제적 생활투쟁에 있었으며, 반드시 식민지 권력에 반대하는 항일농민운동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었다.[101] 그럼에도 지주측은 그들의 입장을

96) 강동진,『한국농업의 역사』, 한길사, 1982, 297쪽.
97) 蘇淳烈,「植民地後期朝鮮地主制の硏究」, 京都大學 農林經濟學 博士學位論文, 1994, 219쪽.
98) 전라북도,『有力資産家調』, 1928.
99)『조선일보』, 1923년 2월 10일; 11월 9일; 1924년 5월 5일; 9월 8일; 1927년 2월 9일; 4월 22일; 8월 15일; 10월 3일; 10월 19일; 홍성찬 외 4인,『일제하 만경강유역의 사회사-수리조합, 지주제, 지역정치-』, 혜안, 2006, 117~118쪽.
10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260쪽.
101) 이 같이 보는 이유는 소작쟁의 초기, 대규모 집단적 저항운동의 성격을 보였지만, 192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몇몇 사례를 제외하면 소작쟁의는 집단운동의 성격마저 상실하기 때문이다(차남희,「경제적 농민과 정치적

시종일관 고수함으로써 결국 소작료 인상을 관철시켰다.[102]

한편 산외면에서는 1928년 4월 합법농조가 조직되었다. 산외면 지역의 활동가들이 사상단체인 '신명회'를 해소하고 산외농조(위원장 고용주, 서무·선전조직·교양·재무·쟁의·공제·상무)를 결성한 것이다.[103] 산외농조는 1929년 3월 농조사무실 및 간부들의 가택 수색사건[104] 등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활동을 계속하였다.

정읍군 용북면 신태인리에도 소작쟁의 과정에서 농조가 조직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1930년 9월 빈영환(賓永煥) 등 중심인물이 검거되면서 유야무야된 듯하다.[105]

이평면에서도 신태인 농조 사건과 거의 동일한 시기에 이른바 '이평농조사건'으로 김용원(金容轅) 등이 검거되었으나 모두 석방되었다. 이평농조는 1926년 3월경에 창립된 '이평노친회'의 후계조직이었다.[106] 이평노친회는 1926년 10월경 '이평농민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가,[107] 이후 또다시 농조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농조의 중심인물은 김용원·이재구(李在九)·윤동진(尹東振) 등이었다. 조선일보 신태인지국장이었던 김용원은 이평농조의 중심인물[108]임과 동시에 이른바 정읍군 내 '적색농민조합사건'의 중심인물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정읍지역에는 3개 지역에서 농총 산하의 농조가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군단위의 통일적인 농민조합을 건설하고자 하는 시도는 없었다. 비록 군단위의 통일된 조직을 건설하지는 못했으나 정읍지역의 농조운동은 전북의 여타 군에 비해 상당히 활발한 편이었다.

1931년 11월 초 정읍·이평·산외·감곡·정토·용북 지역의 활동가 30여 명은 '독서회 및 적농 조직혐의'로 대거 검거되었으며,[109] 이로써 정읍지역의 합법 농조운동은 궤멸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으로 1930년에 발생된 '전북농민폭동'사건이 있다. 정읍군 고부면과 영원면, 부안군 주산면과 백산면을 경계로 한 배수로 개설 공사에 영세농과 고농(雇農)이 동원되었다. 공사 길이는 약 4km였고, 몇 년에 걸쳐 농한기에만 실시되었다. 이 때 모두가 공사 담당자인 수리조합과 이를 현장에서 감독하는 십장들의 비인간적인 횡포에 불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러던 차에 인부 하나가 현장 십장에게 부당하게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인부들이 현장사무소를 방화하는 것으로 끝이 났지만, 규모가 워낙 커 지방 경찰로는 진압을 못하고 신태인에서 일본 헌병대가 오고 나서야 진압되었다.[110]

3. 형평운동

형평운동은 백정들에 대한 차별대우를 개선하려는 운동으로, 1923년 진주에서 형평사(衡平社)가 조직되어 1935년 대동사(大同社)로 이름을 바꾸기까지 12년 간 전개된 사회운동이었다.

정읍은 1923년 5월 23일 이리, 군산, 김제에 이어 전북에서는 네 번째로 분사가 창립되었

농민: 일제시대 농민운동의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제26집, 한국정치학회, 1992, 104쪽).

102) 소순열, 위의 박사논문, 222쪽.

103) 『동아일보』, 1928년 4월 10일.

104) 『동아일보』, 1931년 7월 20일.

105) 『조선일보』, 1930년 5월 13일; 『동아일보』, 1930년 5월 16일.

106) 『동아일보』, 1926년 3월 5일.

107) 『동아일보』, 1926년 10월 21일.

108) 『동아일보』, 1926년 3월 5일; 10월 21일.

109) 『동아일보』, 1932년 2월 12일.

110) 허영철, 『역사는 한 번도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 보리, 2006, 22쪽.

다.[111] 하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도 뚜렷한 활동이 없었던지 관련 기사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던 중 1924년 5월 27일 정읍노농연합회에서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분사의 진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때 분사장 장두원(張斗元)의 사회로 최성룡(崔成龍)의 취지 설명과 최중진(崔重珍)의 연설이 있었다. 이어서 서기 최석준(崔錫俊), 고문 이익겸(李益鎌), 마상준(馬相俊)을 선임하고, 사원들이 앞을 다투어 성금 함으로써 총 86원이 모아졌다. 총회 후에는 시내 각처로 선전지를 배부하면서 사원을 모집한 결과 50여 명의 사원이 확보되기에 이르렀다.[112]

이 중 장두원은 1925년 4월 25일 형평사전국대회에서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113] 최성룡은 정읍의 사상단체인 '오월회'(五月會)의 위원이자,[114] 정읍청년회 집행위원이었다.[115] 최성룡은 1926년 11월부터 『동아일보』 정읍지국 기자로 활동하였으며,[116] 1927년 5월 10일 정읍청년회관에서 열린 전북기자단 제3회 정기대회에서 개회사[117]를 할 만큼 언론계의 중추인물이었다. 그 해 5월 20일 정읍청년회관에서 열린 정읍 형평사 혁신총회에서는 임시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였다.[118] 이로 보아 정읍분사는 최성룡의 역할로 인해 지역의 사상단체와 청년단체의 지지와 후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성룡을 비롯한 최중진 같은 언론인들의 도움으로 일반민들의 형평운동에 대한 반감이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정읍에서 '반형평 사건'이 일어난 것은 1929년 1월 1건에 그치고 있다.[119]

1925년에는 사규 개정을 통해 분사의 활동을 모색하였다. 1925년 3월 27일 오후 1시 분사장 장두원과 고문 이익겸의 주최로 정읍노농연합회관 상층에서 임시총회가 열렸다. 다음은 임시의장 최중진의 진행으로 결의된 정읍형평 혁신사규개정에 관한 내용이다.[120]

一. 사장제를 위원제로 개신하여 집행위원은 15인으로 부는 서무, 재무, 교양, 구호 4부 각 부를 9인이 분장하고 상무위원은 3인 중 1인만 유급으로 정함.
二. 정기총회와 신축회관 낙성식 일자를 음력 4월 8일 동 분사창립 기념일에 병행하기로 함.
三. 경성본사 축하금 기부는 10원으로 하기로 함.
四. 경성에서 다음 달 중 개최될 형평민중 양 대회에 출석할 대표는 서기 최석준 씨로 결정함.
五. 도살 수 매 두에 몇 십 전씩 분사경비로 수입하는 것은 지난 해 부터 시행하는 중이어니와 건피와 피혁중개업을 사에서 관리하여 누구를 지정케 하되 건피수수료 10분의 2, 중개수수료 10분의 4를 분사로 수입하여 경비에 보충하기로 함.
六. 축우이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당 축산조합에 교섭하여 재징의 폐가 없도록 하기로 함.

정읍은 이와 같이 사장제를 집행위원제로 개정하고, 회관을 신축하기로 했으며, 건피의 공동판매를 기획하는 등 일찍부터 이윤이 많은 건피(우피)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다. 또 분

111) 『조선일보』, 1923년 5월 27일.
112) 『동아일보』, 1924년 6월 3일.
113) 김중섭, 「일제침략기 형평운동의 지도 세력」, 『동방학지』76집, 연세대 국학연구원, 1992, 113쪽.
114) 오월회는 정읍 유지 청년들의 발기로 1925년 5월 3일 정읍노농연합회관 상층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조선일보』, 1925년 5월 17일).
115) 『조선일보』, 1925년 8월 19일.
116) 『동아일보』, 1926년 11월 1일.
117) 『동아일보』, 1927년 5월 10일.
118) 『동아일보』, 1927년 5월 26일.
119) 『조선일보』, 1929년 1월 21일; 자세한 내용은 김재영, 「일제강점기 형평운동의 지역적 전개」, 전남대박사논문, 2007을 참고할 것.
120) 『조선일보』, 1925년 4월 2일.

사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는 등 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부분적인 노력이 1925년까지 있었다. 결의사항 중 사장제를 집행위원제로 개정한 것은 1924년 4월 11일 형평사 경남지사의 결정보다 10개월 뒤의 일이나,[121] 1925년 4월 25일에 열린 중앙집행 위원회에서 운영방침을 위원제로 바꾸는 것보다는 시기적으로 한 달 가량 앞서고 있다.[122]

그런데 이 시기(1925년)에 국내 청년단체 대부분이 혁신총회의 형태를 통해 회원중심의 단체로 전환하고 있었다. 혁신의 목적은 회장제를 집행위원제로 바꾸어 민주적 중앙집권제를 통한 회원의 의사반영 확대에 있었다.[123] 정읍분사도 이러한 시대 흐름의 추이에 보조를 같이 하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호남지역에서 정읍분사가 가장 먼저 수용했다고 하는 점이다. 이러한 방침은 호남지역 지·분사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1928년 6월 1일 전주지사 제6회 정기총회에서 사장제를 집행위원제로 고쳤으며,[124] 1928년 6월 군산분사에서도 사장제를 위원제로 변경하기에 이른다.[125]

하지만 1927년까지도 정읍은 수면상태에 있었다는 일간지의 보도로 보아 이후에 이렇다 할 뚜렷한 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126] 그것은 1927년 7월 12일에 열린 임시총회에서 차별문제가 여전히 논의되고 있고, 내부결속에도 문제가 있어 반동사원 처벌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127] 그런 가운데서 정읍은 분사 간부와 사원들의 열성으로 500원의 예산으로 조선식 1동 건물을 1927년 7월 20일에 착수하여 8월 20일 준공을 앞둘 정도로 운동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었다.[128] 이러한 상황에서 1928년 8월 사회단체인 청년동맹 지부에서 형평운동과 여성운동 촉진에 관한 건을 토의[129]하고 나섬으로써 정읍지역 형평운동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1929년 1월 수육판매가격이 균일치 못하고 이를 조정할만한 기관이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던 형평사원 최석(崔錫),[130] 최윤표(崔允杓), 조상철(趙尙喆) 등의 발기로 그 달 19일 형평사 회관에서 정읍육상조합(井邑肉商組合)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서 결의된 사항은 수육 판매영업을 통일하고 수육 가격제정, 판매소와 기구 종업자 착의, 조합원 친목과 빈약한 조합원 자금대여 문제 등이 토의되었다.[131] 5월에는 기관지 『정진』(正進/한글명:나아가자)이 발행되자 분사차원의 지지 결의가 있었다.[132]

이와 같이 정읍 분사에서는 주로 사원들의 경제활동에 관한 내용이 토의되었을 뿐 인권운동에 대한 내용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형평운동의 1차 목적이 백정들에 대한 차별대우 철폐임을 생각할 때 이는 대단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이 같은 현상은 백정의 직업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30년대 전체 백정인구의 4분의 3이 노동자인 도부나 피혁 관계 노동자(제화/製靴·혜제조공/鞋製造工·피혁/皮革·골제품공/骨製品工) 또는 죽·유세공(竹·柳細工)으로 가난한 백정들이었다. 특히 이렇게 가난을 면치 못했던 곳이 호남과 호서지역의 백정들이었다.[133] 그렇기 때문에 차별철폐를 위한 인권운동보다 경제투쟁이 우선시

121) 『조선일보』, 1924년 4월 15일.
122) 『동아일보』, 1925년 4월 28일.
123) 박철하,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한국사』49, 국사편찬위원회, 2001, 381~382쪽.
124) 『동아일보』, 1928년 6월 3일.
125) 『중외일보』, 1928년 6월 25일.
126) 『동아일보』, 1927년 5월 26일.
127) 『동아일보』, 1927년 7월 16일.
128) 『동아일보』, 1927년 8월 5일.
129) 『동아일보』, 1928년 8월 23일.
130) 최석은 1932년 7월 25일 형평사 총 본부 확대위원회에서 사회를 보았으며, 1933년 3월 20일 형평 청년전위동맹 사건으로 구속되었다(『동아일보』, 1932년 7월 28일; 1933년 3월 23일).
131) 『조선일보』, 1929년 1월 27일.
132) 『조선일보』, 1929년 5월 21일.

된 것이다. 이는 운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투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평운동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계속되고 있었다. 1929년 5월 정읍 분사 형평지부 총회에서는 일반인들의 방청 금지와 함께 축전·축문 50여 통 중 30여 통이 압수되었고, 차별문제의 토의마저 금지되었다.[134]

그런데 정읍은 창립 당시 동종섭(董鍾燮)이 대의원의 대표격인 평의원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고, 1929년 5월 16일 정읍형평분사 정기대회에서는 동인섭(董仁燮)이 위원장에 선임되었다.[135] 평의원장은 보통 백정출신의 사원이 임명되는데, 정읍은 바로 이들 동씨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읍지역의 형평운동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은 임시총회에서 소감 연설을 했던 최중진과 이익겸이었다. 한 사람은 개신교 목사[136]이자 정읍노동공제회 회장을, 한 사람은 정읍노동공제회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읍분사의 고문을 맡고 있었다.

최중진은 『조선일보』 정읍지국장을 지내면서 정읍을 중심으로 형평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형평운동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이 지역 백정들의 인권운동에 앞장서고 있었다. 또 정읍역을 중심으로 일하는 천민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운동도 함께 전개하였다.[137] 그는 또 정읍분사가 창립되자 고문으로 추대를 받고, 1923년 5월 25일에는 광주지사 창립식에 진주형평사 위원장 장지필(張志弼)과 동사 고문인 신현수(申鉉壽)와 함께 참여하였다.[138] 또한 1923년 5월 26일 창립되었던 형평사 목포분사의 고문으로도 위촉되었다.[139] 1927년 4월에는 이익겸과 함께 신간회 정읍지회 창립준비위원으로 참여하였다.[140] 이로써 그가 형평운동과 사회 운동계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맡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역시 고문으로 활동했던 이익겸(1880-1929)[141]도 지역 내 명망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형

---

133) 秋定嘉和, 「朝鮮 衡平社 運動」, 『部落 解放』제52호, 1974, 47쪽.
134) 『조선일보』, 1929년 5월 11일, 12일.
135) 『조선일보』, 1929년 5월 21일.
136) 최중진은 그의 3형제가 호남 지방 개신교 역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것으로도 유명한 인물이다. 그는 전북지방 최초의 장로이자 호남지방 최초의 목사였다(김수진, 『호남 기독교 100년사』, 쿰란출판사, 1998, 268쪽). 최중진은 목사가 된 뒤 1900년 정읍 태인에 매계교회를 세우고 1903년 북면 화해교회, 1904년 천원교회, 1911년에는 정읍제일교회 설립에 일조함으로써 정읍 개신교 역사에 선구자적 업적을 남긴 사람으로 인정된다. 한편, 그는 자신도 선교사들처럼 마음껏 구제할 수 있는 구제 기금을 보조해 달라고 하면서 정읍·부안·고창·임실 지역의 교회를 자신이 관리하고자 하였다. 이 사건을 개신교에서는 '자주 교회 사건'이라 하는데,(김수진, 위의 책, 272쪽; 최현식, 『증보 정읍군지』, 삼양출판사, 1974, 603쪽) 최중진은 이 사건으로 1910년 2월 22일 전라 대리회에서 제명당하게 된다. 결국 민족적 자긍심을 일깨워주고 선교사들의 서양 우월주의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 그의 의도는 실패하였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그는 1915년 식민지 전도로 악명이 높았던 일본 조합 교회 조선 전도부에 합류하였다(육기수, 「최중진 연구: 호남 지방 선교 활동을 중심으로」, 전주대 신학대학원 석사 논문, 2002, 49쪽). 그러나 1921년 3·1운동과 조합 교회를 통한 총독 정치의 선무 공작이 실패하자 조합 교회에 대한 총독부의 지원이 끊기고 조선 전도부는 폐지되었다(서정민, 『일본 기독교의 한국 인식』, 한울 아카데미, 2000, 225쪽). 이에 최중진은 자연스럽게 활동을 접은 것으로 보인다.
137) 김수진, 『호남선교 100년과 그 사역자들』, 고려 글방, 1992, 91쪽.
138) 『조선일보』, 1923년 5월 30일.
139) 『동아일보』, 1923년 8월 3일.
140) 『동아일보』, 1927년 4월 16일.
141) 이익겸은 1919년 3월 20일 정읍 3·1운동에 박환규(1886~1957)와 함께 항일 만세 시위를 도모하다 헌병에 피체되어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은 바 있다(정읍시사 편찬 위원회, 『정읍시사』, 신아출판사, 2003, 3516쪽). 1923년에는 민립대학 집행위원회에서 기금 모금 마련을 위한 선전 위원으로 위촉되었다(『동아일보』, 1923년 11월 21일). 또 1925년 4월에는 전라노동연맹 중앙집행위원,(『동아일보』, 1925년 4월 18일) 1925년 11월 조선노동총동맹 신중앙집행위원으로 선임되어(京鍾警高秘 제12349호의 2, 「조선노동총동맹 집행위원 개선에 관한 건」, 1925년 11월 2일; 김희곤·강윤정, 『잊혀진 사회주의 운동가 이준태』, 국학자료

평사가 혁신동맹과 진주본사로 분열되었을 때 혁신동맹 측의 대표로 형평사중앙총본부 임시대회(1924.8.15)에서 임시의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하였다. 이 대회에서 이익겸은 40명의 중앙집행위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정되었다.[142] 뿐만 아니라 1927년 4월 13일에 열린 신간회 정읍지회 발기인 회의에서 임시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기도 하였다.[143]

이로써 본다면 형평사 정읍분사는 지역 내 사상단체를 비롯한 청년단체, 언론단체, 노동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표2〉 와 같다.

〈표2〉 정읍지역 지·분사의 주도 인물과 후원 인물

이름	직업	형평운동	활동내용과 분야	성향	비고
최중진	목사/(조)정읍지국장	정읍분사고문. 목포분사고문	노동운동(정읍노동공제회장) 신간회	사회주의자	1915년 일본조합교회 조선전도부 합류
이익겸		분사고문 형평사 중앙집행위원	3·1만세시위,사회운동, 노동운동, 신간회	민족주의자	
최성룡	(동)정읍지국기자	정읍형평분사 혁신총회 임시의장	정읍청년회 집행위원 전북청년연맹 대표 사상단체 '오월회'위원 산외·입암청년회 창립축사	사회주의자	

*(조)는 조선일보, (동)은 동아일보

정읍은 이와 같이 당시 정치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언론인과 민족주의자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이 연합하여 지역의 사회운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최중진의 경우, 한편으로 민족운동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일본조합교회'에 합류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이는 물론, 일제의 종교단체의 어용화 정책에 기인하는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일제는 기독교가 종파가 많고 선교구(宣敎區)가 분산되어 불교와 같이 중앙집권화를 통한 어용화가 곤란하자 「미국 선교사의 태도에 반감을 품고 있는 자들을 이용, 독립교회를 설립케 하였다. 그리고 이를 조종해서 장차 총독부 문화정책 선전의 1기관으로 만드는」 방침을 취하였기 때문이다. 이로써 외국인 선교사의 영향력을 배제하고자 했으며, 또한 어용적인 '일본조합교회'를 확장 동원함으로써 민족주의자들을 배제하기 위한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144]

4. 소년운동

1920년대 정읍에는 태인소년회, 산외소년회, 정읍소년회, 비호단소년부가 조직되어 활동하

원, 2003, 167~168쪽) 노동운동에도 적극적이었다. 그 해 12월에는 정읍 장명리에 있는 정읍 공립보통학교의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실은 증축되었으나, 운동장이 협소하게 되었다. 이에 2,000평의 부지 확보를 위해 기부금 모집에 앞장서는 등 지역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조선일보』, 1925년 12월 9일). 이익겸은 3·1운동 당시 그의 독립운동이 인정되어 1990년 애족장이 수여되었다(서훈번호 8-356).

142) 『동아일보』, 1924년 8월 19일; 『조선일보』, 1924년 8월 20일.

143) 『동아일보』, 1927년 4월 16일.

144) 김운태, 『일본제국주의의 한국통치』, 박영사, 1986, 302쪽.

고 있었다.[145] 1925년 공립학교 교장들이 "소년회에 가면 퇴학을 시킨다." "어린이 잡지를 읽으면 벌을 세운다."고 했을 정도로 당시는 소년운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던 때였다.[146] 전남 영암에서는 보통학교 교장이 소년단 웅변회에 출연하거나 청강을 엄금했으며, 소년운동을 적극 저지하려 하였다.[147] 이러한 사회분위기 가운데서도 소년회가 창립되어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은 활동의 적극성 여부를 떠나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운동의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1928년 정읍소년동맹을 창립하고 그 해 8월 20일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여자교육 문제를 의제로 선정함으로써 여자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하다.[148]

한편 1909년 월곡(月谷) 차경석(車京石)에 의해 창시된 보천교에서도 소년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점은 특기할만하다. 보천교가 비정규학교이지만 야학을 설립하려는 등 계몽주의로 전환하게 된 것은 이상호(李祥昊)와 그의 아우 이성영(李成英) 그리고 주익(朱翼), 고용환(高龍煥), 이득년(李得年) 등 신교육을 받은 청년들의 역할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기관지 『보광』(普光)이 이들에 의해 창간되었고, 당시 일간지인 『시대일보』 인수 역시 이들에 의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149]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방에서는 유치원을 세우고 소년군[150]을 조직하는 등 일련의 사업이 계속 추진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소년단 운동의 효시는 국외까지 포함하면 1918년 하와이에서 이승만이 조직한 '한인 보이스카우트'가 시초가 된다. 그러나 국내에서 지상에 소년단 운동이 게재된 것은 1920년 8월의 일이다. 즉 『조선일보』 1920년 8월 25일자에 "개성 시내 소년단의 용맹한 활동, 군대 행진하는 모양으로 전진하다 체포."라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록상으로 이미 1920년부터 소년단 운동이 전개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것은 지도자가 확실한 전국적인 조직의 소년단 운동이라는 단서는 아직 없다. 다만 자생된 소년단 운동의 서막임에는 틀림없다.[151] 그렇다면 1923년 보천교에서 조직한 소년군은 국내에서는 비교적 빠른 시기에 해당되며, 새로운 사상과 흐름에 대해 이들이 결코 무디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보천교 소년군의 조직과 활동은 의의가 있으나, 이들의 구체적인 교육내용이나 활동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5. 여성운동

한말 근대교육과 더불어 시작되었던 야학운동은 3·1운동 이후 1920년대에 이르러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1920년 정규학교의 취학률은 학령아동을 약 2,283,670명으로 추정할 때, 당시 107,365명만 재학할 정도로 취학률은 4.7%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초등교육기관의 입학난을 가중시켰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사립학교 설립이나 야학의 활성화 밖에 없었다.[152] 따라서 야학은 초등교육기관을 대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거의 대

145) 김정의, 『한국소년운동사』, 민족문화사, 1992, 153쪽.
146) 『동아일보』, 1925년 1월 1일.
147) 『동아일보』, 1926년 2월 24일.
148) 『중외일보』, 1928년 8월 25일.
149) 안후상, 「보천교와 물산장려운동」, 『한국민족운동과 종교』, 국학자료원, 1998, 394~398쪽.
150) 당시 일반에서는 보이스카웃을 '童子軍'으로도 불렀다(『동아일보』, 1923년 10월 7일).
151) 김정의, 앞의 책, 159쪽.
152) 김형목, 「1920년대 전반기 서울지역 야학운동의 분화발전과 성격」, 『우수논문집』2, 중앙대대학원, 2000,

부분의 지역에서 부인(여자)야학은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정읍도 예외는 아니었다. 정읍의 여자야학 역시 설립연대가 늦고 활발하지 못했다. 설립주체는 기독교 측과 지역 내 유지들이었다. 이를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3〉 1920년대 정읍지역 여자 야학의 설립 현황[153]

야학명	위치	설립자	교사진	교과목	학생 수	출전	비고
여자야학회	정읍	기독교회	교회 임원			(동)1924.2.20	
노동야학	보림 오류리	유지	유지	일반상식	남녀 30	(동)1926.9.13	
부녀야학회	정읍 산성리	유지여자	유지여자	일반상식	10	(동)1927.2.21	강연회

*(동)은 동아일보

이후 야학에 관한 기사는 1930년대에 나타나나, 이는 친일성격의 단체에서 운영되던 것이었다. 1939년에 결성된 '정읍여자청년단'이 바로 그것이다. 이 단체는 15세 이상 25세 이하의 신체 건강하고 사상이 온전한 부녀자를 단원으로 한정하였다. 당시 여자청년단을 이끌던 단장은 일본인이었으며, 단원은 약 70명 정도에 이르렀다.[154]

6. 신간회

신간회는 주지하다시피, 일본 제국주의 통치 하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항일 사회운동 단체였다. 신간회는 청년, 여성, 노동, 농민, 형평, 사상운동 등과 조직적, 이념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155]

신간회 정읍지부는 1927년 4월에 창립되었다. 정읍지부는 그 해 3월 함경북도 나남지역에 처음으로 신간회 지부가 창립되고, 이어서 4월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지부가 결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 전라북도는 정읍을 시작으로 5월에 전주, 6월에 군산, 임실, 화호, 7월에 김제, 8월에 남원, 1928년 2월에 순창, 3월에 부안지역에 지부가 창립되었다.[156] 신간회는 창립에서 해산에 이르기까지, 일단 설립이 완료되었던 지회가 전국적으로 149곳이었다. 1구역, 즉 1개의 府 혹은 군에 별도의 명칭을 가진 2개 이상의 지회가 설립된 곳이 바로 정읍-화호지회였다.[157]

창립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27년 4월 13일 정읍청년회관 내에서 신간회 정읍지회 창립 발기인회가 열렸다. 이와 같이 신간회 지회설립은 지역 청년단체의 후원과 지지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158] 이날 12명이 출석한 가운데 창립 준비위원으로

67~70쪽.

153) 이미춘, 「1920년대 여자야학의 운영과 그 성격」, 『역사와 향촌사회 연구』, 2000, 654쪽, 668쪽, 671쪽.

154) 『동아일보』, 1939년 11월 21일.

155) 이균영, 『신간회 연구』, 역사비평사, 1993, 17쪽.

156) 이균영, 「新幹會에 대한 새로운 이해」, 『일제 강점기하의 사회와 사상』, 신원문화사, 1991, 340~344쪽.

157) 이외에 經山-河陽支會, 廣州-廣興支會, 新義州-義州支會, 鏡城-漁朱-朱乙支會가 있었고, 咸北 鏡城郡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1구역에 3개의 지회가 설립된 곳이었다. 설립사실은 확인되지 않지만 1지역에 2지회 이상의 설립이 시도된 곳으로는 康津-兵營, 醴泉-豊川, 論山-江景이 있었다(위의 책, 342쪽).

158) 신간회 충북 괴산지회는 충북에서 가장 먼저 설립되었으며, 대표적으로 활동한 사회운동 단체였다. 최동일

최중진, 김회진, 최성룡, 이익겸, 유연기가 선임되었다.

〈표4〉 정읍지역 각 부문 운동 중복 인물

구분	임원	중복인물과 직업	성향
정읍청년회	車敬三/朴種奎/朴基敦/朴治奎/洪迥根/朴二湧/金會珍/崔重珍/李益兼	김회진(2단체)/ 최성룡(2단체)/기자 유연기(2단체)/기자 이익겸(3단체)/ 최중진(4단체)/기자	사회주의자 사회주의자 민족주의자
조선노동공제회	김정기/박석규/최중진/박흥규		
입암청년회	柳然基,		
형평운동	張斗元/崔成龍/崔重珍/崔錫俊/李益鎌/馬相俊.		
신간회정읍지회	최중진/김회진/최성룡/이익겸/유연기		

이 가운데 최중진은 정읍지역 형평운동을 주도한 인물이었으며, 김회진은 정읍청년회 부설 야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사였다. 유연기는 1927년 7월부터 1933년 5월까지 『동아일보』 정읍지국 기자로 활동한 언론인이었으며, 기자 사임 이후에는 고문으로 활동한 인물이었다.[159] 특히 유연기는 1927년 10월 '조선청년총동맹전북연맹' 조사부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160] 1930년 12월에는 '전북공산당 사건'에 연루되어 치안유지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사회주의자였다.[161] 정읍 신간회 지부는 이와 같이 기존 사회운동의 핵심 인물들이 신간회에 간여하고 있었다.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청년회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신간회의 창립은 물론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정읍지부는 일찍이 청년회 간부로 활동했던 차경삼과 박흥규가 신간회 활동에서는 빠지고, 민족운동에 간여하다 일본조합교회에 합류했던 최중진은 이후 이익겸과 같은 민족주의자와 최성룡과 같은 사회주의자와 연대하여 신간회 정읍지회를 이끌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두드러진 활동은 없었다. 이는 전임 간부들의 무성의한 일 회무처리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162]

Ⅲ. 신종교 보천교의 민족운동

정읍은 동학농민운동의 발상지이자, 일제강점기에는 신종교(新宗敎)가 발생·수용·확산된 지역이다. 신종교 가운데 일세를 풍미했던 보천교(普天敎)가 정읍시 입암면 대흥리에 본부를 두고 있었고, 보화교(普化敎), 미륵불교(彌勒佛敎), 황극교(黃極敎), 찬물교[淸水敎] 등 증산교에서 분파된 신종교들이 정읍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 신종교는 광복 이후 교세가 많이 약해졌으나, 일부는 현재까지도 그 교단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천주교 박해를 전후한 시기에는 박해를 피해 피난 온 신자들에 의해 교우촌이 일찍부터 형성되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공소(公所)가 건립되어 있었다. 이렇게 다양한 종교가 발생되고 수용될 만큼 정읍은 종교적 성향이 아주 강한 지역이었다.

의 연구에 의하면, 괴산지회는 괴산지방 사회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조직된 괴산청년회(1920.8)의 주도로 이뤄졌음을 밝혔다. 괴산청년회원 55명 가운데 19명이 신간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최동일, 「신간회 괴산지회의 조직과 활동」, 『충북사학』제15집, 충북대사학회, 2005, 92쪽).

159) 『동아일보』, 1927년 7월 24일; 1928년 1월 27일; 1932년 2월 2일; 1933년 5월 12일; 1935년 3월 31일 참조.

160) 『동아일보』, 1927년 11월 4일.

161) 『동아일보』, 1930년 12월 9일.

162) 『동아일보』, 1928년 2월 23일.

필자는 이 가운데 보천교를 주목하고, 이들이 실제 민족운동에 참여하였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보천교의 민족운동사적인 측면을 부각시켜보고자 한다. 이는 당시 신문과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이비종교라는 견해와는 사뭇 다른 것이다.

1. 보천교의 민족운동

(1)보천교의 민족운동에 대한 경향성

보천교는 1925년 시국대동단(時局大同團)[163]이 결성되기 이전까지 사실 상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있었다. 보천교가 민족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구체적인 사례를 정리하면 〈표5〉 와 같다.

1918년 10월 남제주도 좌면(지금의 중문)에 위치한 법정사에서 보천교도의 항일투쟁이 있었다. 차경석과 경북 영일 출신 김연일(金蓮日) 등이 서로 모의해 같은 해 9월 19일 구 맹란분회(舊 盂蘭盆會)[164]에 즈음하여 제주도 법정사에서 교도 30명을 소집하고, "왜노는 우리 조선을 병합시켰을 뿐만 아니라 병합 후에 관리는 물론 상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동포를 학대해 혹우(酷遇)시켜, 실로 왜노는 우리 조선 민족의 구적(仇敵)이 되어, 머지않아 불무황제(佛務皇帝)가 출현해 국권을 회복시키므로 교도들은 제일 먼저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관리를 완전히 살해한 후 상인을 구축(驅逐)시켜야 한다."며 설득하였다. 10월 4일 밤부터 다음날 5일에 걸쳐 김연일은 그 배하(配下)를 도내 각지에 보내 신도 33명을 법정사에 소집하고 스스로 불무황제라 칭했다.

〈표5〉 보천교의 민족운동과 관련된 사건

---

163) 시국 대동단은 친일단체인 각파유지연맹의 일부 인사가 떨어져 나와 보천교와 합작하여 조직한 단체였다. 『개벽』에 따르면, 1924년 9월 "各派聯盟의 蔡基斗, 高羲駿 등이 기회를 엿보고 보천교의 林敬鎬, 文正三 등을 누차 면회한 결과, 보천교는 각파 연맹의 附官的 세력을 신뢰하고 각파연맹은 보천교의 多衆 多財한 것을 신뢰하야" 서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한다(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2004, 『일제협력단체사전』, 민족문제연구소, 242~243쪽). 『동아일보』는 결성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도하였다. 시국대동단은 친일 단체로 지목되는 11개 단체 중 40여 인이 각파유지연맹을 조직하고, 그 후 이 연맹의 취지가 공명을 얻지 못하고 재정 궁핍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자 최근에 이 연맹에 가입한 40여 인 중 10여 인과 보천교주 차경석 휘하의 10여 인이 중심이 되고 그 밖의 참가자를 합하여 발기자 69인의 명의로 결성했다고 하였다(『동아일보』, 1925년 1월 9일자). 강령은 내선인의 정신적 결합을 견고히 하고, 대동단결하여 문화의 향상을 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세간에 보천교는 제2의 각파유지연맹이며, 종래 일종의 의문으로 주목되는 보천교가 금번에 친일로 태도를 명백히 한 것이다. 라는 풍문이 있었다(『조선일보』, 1925년 1월 9일). 『조선일보』는 다음날 논설을 통해 시국 대동단 결성은 보천교의 자멸책이라고 평가하였다(『조선일보』, 1925년 1월 10일).

164) 음력 7월 15일을 '百種'이라고 하는데, '百中', '우란분회'라고도 한다. 이 날이 되면 음식을 장만하여 산이나 들로 가서 노래와 춤으로 하루를 즐긴다. 농가에서의 농사일도 수확만을 기다리게 되므로 일꾼들을 쉬게 하여 호미씻기도 이 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머슴날'이라고도 한다. 불교에서는 죽은 사람의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하는 '盂蘭盆供'이라는 행사를 한다(최영년 지음·황순구 역주, 『俗樂遊戲』, 정음사, 1986, 129~130쪽).

발생일자	사건 명	내용	출처(기사)
1918.10	제주 법정사 항일투쟁	법정사 교도 30명 중문리 경찰관 주재소 습격, 방화 전소	明治百年史叢書(1967)
1921. 5	태을교도 국권회복 운동	태을교도의 목적은 국권 회복에 있다하여 운동자금 징수	高警第13765號(「江原道における太乙教徒獨立團員檢擧の件」)
1920. 9	태을교도 국권회복 운동	조선독립 사상 고취	(동)1921.2.19
1921.8.6	태을교도 국권회복 운동	조선독립 기도 성금수합	(동)1921.4.30
	상해 임시 정부 독립운동 자금 지원	나용균을 통해 임정에 전달(?)	(동)1925.10.2
1921	상해 임시정부 군자금조달	전주에서 11만원 압수	(동)1922.2.24
1922	세계약소민족회의 참가 여비 지원	차월곡이 최팔용과 장덕수 통해 1만원 지원	歷史批評(1989년 여름호)
1924	김좌진 장군 군자금 지원	2만원으로 무장대의 편성 가능	亞細亞局第3課關機高 授 第32743號.
1924. 3.26	상해 임정에서 보천교 본소에 군자금 모집	경찰에 체포	(동)1924.4.1
1925.11	조만식(趙晩植) 권총단사건	천진불변단장(天津不變團長) 조만식이 요인 암살, 군자금 모집 목적으로 본소에 잠입	(조)1925.1.21
1925.12	정의부 독립운동 자금	군자금 모집위해 비밀리에 잠입	(동)1925.12.11
1929. 9	보천교도 금방주 김규찬의 형 김규정 수사	김규정이 의병으로부터 받은 권총 1자루와 탄환 10여 발을 보천교와 연관지어	『보천교연혁사』(1958)

*(조)는 조선일보, (동)은 동아일보

그리고 위와 같은 목적을 결행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그 방법을 협의해 대오를 정리한 다음, 부근 각 면, 리장에게 "일본 관리를 소멸하고 국권을 회복해야 하므로 다시 장정을 거느리고 참가하라. 따르기를 꺼리는 자는 군율에 따라 엄벌에 처한다." 라는 격문을 배포하였다. 6일 밤부터는 제주성 내로 향해 행동을 개시하고 7일에는 중문리에 도착하여 경찰관 주재소를 습격해 방화, 전소시켰다.[165]

사건 주모자 31명(재판기록은 34명) 가운데 김연일(金蓮日)과 정구룡(鄭龜龍), 강민수(姜敏洙)가 승려이고 박명수(朴命洙)만이 보천교 수령으로 되어 있어 불교계 일각에서는 불교인들이 주동이 된 항일투쟁으로 주장하고 있다.[166] 그러나 보천교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이 크게 작용했거나 세월이 흘러 불교로의 전향을 시도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왜냐하면 제주 법정사 항일투쟁은 관련자의 후손 상당수가 보천교 본소가 있던 정읍에 그 본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제주 보훈지청에서 확인했기 때문이다.[167]

---

165) 김정명 편, 『명치백년사총서-조선독립운동(제1권 분책, 민족주의운동 편)』, 1967, 247쪽.

166) 불교계 측의 주장을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일본 경찰은 이 사건의 원인을 선도교(보천교의 전신)에 대해 경찰의 취재가 엄중했기 때문에 김연일이 선도교 제주도 수령이었던 박주선과 통모하여 일으켰다고 서술하나, 그보다는 민족 의식을 지닌 김연일 등의 승려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항일 투쟁이었다고 주장한다. 선도교가 제주도에 유입된 것은 1914~1916년 경으로 추정되는데, 법정사 항일 봉기가 일어날 때는 보천교라는 명칭조차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당시 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스님들과 지역 대표들이 이 사건을 주도했기 때문에 일본인들도 숭앙하는 불교가 항일 봉기를 주도했다는 사실이 몰고 올 파급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보천교를 부각시켜 사이비 종교의 일시적인 민란 정도로 격하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임혜봉,『일제하 불교계의 항일 운동』, 민족사, 2001, 73~74쪽).

167) 안후상, 「무오년 제주 법정사 항일항쟁 연구」, 『종교학연구』제15집, 서울대종교학연구회, 1996, 167쪽,

일제도 제주도 법정사 사건의 수령을 전라도 정읍 대흥리의 차경석으로 보고, 이들이 은밀히 국권회복을 도모하면서 교도가 5만 5천에 달하면 일제히 독립운동을 일으키고자 하는 일종의 배일 음모단체로 규정하였다.[168] 법정사 항일항쟁은 3·1운동 이전 일제에 항거한 단일 투쟁으로는 최대 규모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아주 크다.

1921년 5월 강원도에서는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태을교도[169] 독립단원의 검거가 있었다. 태을교는 증산 사후 최초로 형성된 종단이지만 차경석이 태을교의 교권을 장악한 후, 1921년 경남 함양에서 고천제를 지내고 보화교를 선포하기 전까지 선도교, 흠치교 등 증산계 교단를 통칭하여 불리던 명칭이었다. 이때 검거된 사람들은 〈표6〉과 같다.

〈표6〉 강원도 태을교도 독립 단원 검거자 명단

성명	나이	직업	주소
김문하(金文河)	43	농업	이천군 판교면 광현리 153번지
김정식(金貞植)	26	농업	이천군 판교면 광현리 170번지
박정찬(朴貞燦)	34	농업	이천군 판교면 광현리 74번지
김경식(金景植)	56	농업	이천군 판교면 광현리 215번지
박경문(朴璟文)	21	농업	이천군 판교면 광현리 230번지
이달제(李達濟)	26	농업	이천군 판교면 광현리 270번지
한용서(韓龍瑞)	44	농업	이천군 판교면 광현리 240번지
박명호(朴命浩)	69	농업	이천군 판교면 광현리 230번지
임현한(林顯漢)	54	농업	이천군 판교면 광현리 9통3호
조병하(曺秉河)	29	농업	이천군 판교면 광현리 137번지
김원하(金元河)	49	농업	이천군 판교면 광현리 168번지
김문환(金文煥)	23	농업	이천군 판교면 광현리 136번지
진문협(秦文狹)	36	농업	이천군 판교면 광현리 6통8호
김순발(金順發)	15	농업	이천군 판교면 광현리 138번지

* 출전: 高警第13765號, 〈江原道における太乙教徒獨立團員檢擧の件〉;
金正明 編, 《朝鮮獨立運動》 民族主義運動篇, 原書房, 1967, 595쪽.

일제는 이와 같은 태을교도들의 국권회복운동을 차단하기 위해 태을교의 전반에 관해 조사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태을교는 '흠치교', 또는 '보천교'라고 칭한다고 시작하고 있다.[170]

이외에도 크고 작은 태을교도의 국권회복운동에 관한 내용이 일간지에 보도되고 있다.[171] 이러한 사례를 통해 보천교는 적어도 1920년대 초반까지는 민족운동 진영에 진출하고자 했으며, 실제로 민족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보천교의 민족운동 가운데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임규(林圭)가 보천교로부터 5만원을 얻어내 나용균(羅容均)에게 전달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처음 장덕수를 통해 자금을 전달하려 했으나, 그가 하와이로

169쪽.

168) 『동아일보』,1921년 4월 26일.

169) 태을교인의 독립 자금 모금 운동에 관한 글은 성주현, 2002, 「1920년대 초 태을교인의 민족 운동」(『일제강점기의 민족 운동과 종교』, 국학자료원)을 참고할 것.

170) 목차는 1장 서언, 2장 내력, 1절 교주 강일순의 출생, 2절 강일순의 편력, 3절 신종교의 창립, 4절 기이의 주문, 5절 교주의 이적, 6절 교주의 죽음과 대분열, 7절 제2세 차경석(그는 동학당 수령의 유애임), 8절 기이의 전설, 9절 태을교의 교 의식, 3장 현황 등으로 되어 있다(朝特報第11號, 「太乙教徒に關する調査報告の件」; 金正明 編, 『朝鮮獨立運動』民族主義運動篇, 原書房, 1967, 687~688쪽).

171) 『동아일보』, 1921년 2월 19일. 1921년 4월 30일. 1921년 8월 6일.

간다 하여 다시 나용균을 통하여 임시정부에 보내게 되었다. 그런데 이 자금이 실제로 임시정부에 전달이 되었는지는 의문이다. 나용균이 자금을 받은 즉시 영국 옥스퍼드대학으로 유학을 갔기 때문이다.[172] 그러나 이 자금이 임정에 전달이 되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천교의 민족운동에 대한 경향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아무튼 임규가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한 때 보천교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1922년 임규가 보천교에 들어가 우매한 교도들을 선도하고자 노력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탈교한 것으로 보도하였다.[173]

1921년에는 보천교에서 상해 임시정부로 보내려는 군자금 11만원이 전주에서 발견되었다.[174] 이것이 임시정부에 전달되었다면, 임정의 어려운 재정 형편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임정에서는 수립 초기에 인도인을 고용해서 수위로 세우기도 했었는데, 정부 청사 집세 30원과 20원도 되지 않는 고용인 월급을 주지 못해 번번이 소송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175] 이 같은 정황을 생각해 볼 때 11만원은 임정의 회생자금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자금이 주로 미주에서 보내는 동포들의 성금과 국내외 일반인에게 징수하는 인구세,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발매하는 공채, 대소·대미차관, 국민의 지원에 의하여 납부하는 애국금만으로 충당한 것이[176]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러한 재원만으로는 독립운동 자금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보천교의 자금이었을 것이다.

한편 보천교에서는 1922년 고려공산당에서 세계 약소민족회의에 참가하고자 김규식(金奎植)과 여운형(呂運亨), 나용균(羅容均), 장덕진(張德震) 등을 파견하기로 결의하였을 때, 이에 대한 여비를 차월곡은 최팔룡(崔八鏞)과 장덕수(張德秀)를 통해 1만원을 지원하기도 하였다.[177]

그러나 무엇보다도 특기할 만한 사실은 보천교에서 김좌진에게 2만원의 군자금을 제공하여 무장대의 편성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다. 1924년 김좌진은 자금부족으로 부하들을 해산하여 활동불능 상태에 있었으나, 보천교 교주 차경석과 연락이 되어 2만원의 군자금을 받아 다시 무장투쟁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같은 사실을 일제가 탐지하고 기밀문서로써 이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일제는 보천교를 배경으로 이같이 움직이는 김좌진의 활동을 탐지하고 상당한 경계를 하고 있었다.[178]

이외에도 1924년 3월 26일에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온 사람이 보천교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러 왔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하였다.[179]

이와 같은 민족운동에 대한 차월곡의 의지는 보천교 수호사장(修好司長)을 지내다 상해로 망명했던 조만식(趙晩植)이 1925년 요인 암살과 군자금 모집을 목적으로 폭탄과 권총을 가지고 보천교 본소에 잠입하고 있었던[180] 일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조만식은 1886년 8월

---

172) 이강오 구술내용(1991.10.19) ; 윤이흠·안후상·최종성·김정인, 『일제의 한국민족종교 말살책』, 한림원, 1997, 238쪽.
173) 『동아일보』, 1925년 10월 2일.
174) 『동아일보』, 1922년 2월 24일.
175) 김희곤, 『대한민국 임시정부 연구』, 지식산업사, 2004, 339쪽.
176) 윤대현, 「대한민국 임시정부 전반기(1919~1932)의 재정제도와 운영」,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80주년 기념 논문집』, 국가보훈처, 1999, 236~237쪽.
177) 「김철수 친필 유고」,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1989년 여름호, 354쪽.
178) 亞細亞局 第3課關機高授 第32743號.
179) 『동아일보』, 1924년 4월 1일.
180) 『조선일보』, 1925년 11월 21일.

10일 평남 평양부 상수리(上需里)에서 태어난 인물로 1919년 4월 18일 북경과 인접한 항구도시인 천진에서 명제세(明濟世) 등 8인과 함께 '천진불변단'(天津不變團)을 조직한 바 있다.[181] 그는 이 조직의 단장이었다.[182] 천진불변단은 1919년 7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비밀외곽단체로서 승인받았다. 또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일이나 고하 송진우, 해방 후 건국준비위원장을 지냈던 민세 안재홍 그리고 여운형도 모두 보천교에서 비밀리에 군자금을 가져간 인물로 후손들은 증언하고 있다.[183]

1925년 12월에는 정의부[184] 의용군 별동대원 세 명이 이춘산(李春山)의 인솔 하에 군자금을 모집할 계획으로 대련을 거쳐 인천 방면으로 들어와 비밀리에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잠입 목적은 보천교에서 20만원의 독립운동 자금을 얻기 위해서였다. 한편 보천교에서는 정의부에 50만원을 지출하여 조선 동포들을 위하여 개척사업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었다.[185]

이렇듯 막대한 금액은 차월곡의 동의 없이는 인출될 수 없는 일임에 분명하다. 또 독립에 대한 열망이나 의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임시정부에서도 이러한 차월곡의 의지를 간파하고 보천교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보천교는 교세가 급속히 확장되면서 풍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Ⅳ. 이동환과 6·10만세 운동

일제강점기 학생운동은 전국적으로 볼 때 일관된 조직을 가지고 전개된 운동은 아니었다. 즉 노동 농민 여성 형평운동과 같이 전국단위의 학생조직을 갖추지는 못하였다. 1920년대 초 학생운동은 주로 '동맹휴학'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이때의 주요 쟁점은 학내문제의 해결과 일본인 교원의 배척 등이었다. 그러나 1920년대 후반에 가면 학생운동이 조직화되면서'식민지 교육의 철폐'와 '조선인 본위의 교육'을 요구하였다.[186]

주지하다시피 6·10만세운동은 3·1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과 함께 일제강점기 3대 민족운동의 하나로 일컬어져 왔다. 운동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조선의 마지막 임금 순종 황제의 장례식이었다. 이 때 조선공산당에서는 전국적인 시위를 전개하기 위해 그와 연관을 가지고 있었던 조선학생과학연구회, 그리고 중앙고등보통학교·중동학교의 학생들을 동원할 계획으로 있었다. 하지만 조선공산당의 계획은 일제의 예비검속으로 사전에 탄로나 거사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붕괴됨으로써 학생 계통의 조직만 남게 된 것이다.[187]

6·10만세운동을 주도한 학생 조직은 두 개로 하나는'통동(通洞)계열'이며 하나는'사직동

---

18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운동사 자료집』11권, 1976, 111쪽. 일간지에는 조만식(趙晩植)으로 되어 있으나, 앞 뒤 정황으로 보아 동일 인물임이 분명하다. 고당 조만식과는 다른 인물이다.

182) 상해일본총영사관,『조선민족연람』, 1932, 41쪽. 조선 민족운동 연람에는 조선홍(趙宣弘)으로 되어 있다. 조선홍은 조만식의 가명으로 추정된다.

183) 역사문제연구소,『다시 피는 녹두꽃』, 역사 비평사, 1994, 107쪽.

184) 정의부는 1924년 11월 24일 統義府·西路軍政署·光正團·吉林住民會·固本稧·卡倫自治會·勞動親睦會 등 8개 독립 운동 단체가 통합해 성립된 것이다. 1920년대 중 후기 재만독립군정부로 활동했으며, 한민족의 자립 사회 건설을 위한 민정 활동과 조국 독립을 우한 항일 군정 활동을 펼쳤다(채영국,「정의부의 항일 군정활동」,『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12집,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8, 55쪽).

185) 이밖에 정의부에서는 백백교에서도 8만원의 독립 운동 자금을 의연받기로 되어 있었다(『동아일보』, 1925년 12월 11일).

186) 조선총독부 경무국,「조선에 있어서 동맹휴교의 고찰」, 1929, 6~9쪽; 김병인,「1920년대 광주지역 청년운동가 강해석 연구」,『호남문화연구』제26권 1호, 1998.

187) 정세현, 『항일학생민족운동사연구』, 일지사, 1975, 190~193쪽.

(社稷洞) 계열'이었다. 전자의 주동 학생이 당시 중앙고등보통학교(현 중앙고) 5학년에 재학 중이던 우리 고장 출신 이동환(李東煥/1901~1982))[188]이었다. 이동환은 순종이 승하하자 중동학교 학생 김재문(金載文)과 함께 시내 공사립 중학교 학생 4~5명을 5월 23일(일요일) 서울 시내 혜화동 밖 삼선평 운동장에 모이게 하고 인산일에 무엇을 하면 좋을 것인가를 의논하였다. 모두 만세를 부를 것을 주장하였다. 이동환은 "몇 번 부르다가 잡혀가는 것 보다는 총독부를 비롯한 일본인 대관들과 일본인이 집단 거주하는 본정[혼마치/지금의 충무로] 일대를 폭파하여 일인들을 몰살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찬동하는 자가 적었다.[189] 그도 그럴 것이 거사가 실행된다면 목숨을 내놓아야 할 처지가 되기 때문이었다. 결국 격문을 뿌리고 만세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인산 당일 이동환은 선전문을 직접 나누어 주고 6·10만세 운동의 취지를 설명했으며 대여(大輿)를 봉송한 뒤 격문을 살포하면서 학생 대열을 헤치고 다니면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칠 것을 주문했다. 6월 10일 만세현장에서 이동환을 비롯한 중앙고보생 1백여 명과 연희전문학생 7~80명이 체포되어 모두 종로경찰서에 유치되었다. 일제는 통동계열 운동의 주모자에 대해 '제령 7호'와 '출판법 위반'이라는 죄명으로 6월 24일 정식으로 기소하고 공판에 회부하였다. 이동환은 주동자라는 이유로 독방에 갇히게 되었다. 1927년 3월 25일 1심 공판에서 검사는 "한강이 역류할지언정 조선 독립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자 이동환은 "한국이 당장에 독립은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민족에게 민족정신을 앙양하고 독립사상을 고취하고자 했다."고 당당히 말하였다. 1927년 4월 1일 경성복심법원 판결에서 통동 측 주모자 5명과 사직동 측 주모자 6명 등 주동 학생 11명 전원에게 각각 징역 1년여의 형이 선고되었다. 이동환은 1년 3개월 10일간의 고초를 겪고 1927년 9월 20일에 출옥하였다. 출옥 후 신간회에 가입하여 지부를 중심으로 야간농민학교를 설립하였다. 문맹을 퇴치하고 나아가 농민들의 민족의식과 독립정신을 계발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이동환은 일본 동경 중앙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으나 이후 어느 직업에도 종사하지 않았으며 독서로 소일하였다. 광복 후인 1945년 9월에 가서야 전북공립고등여학교(현 전주여고)의 역사교사로 부임하였다.[190]

6·10만세 운동 당시 식민통치의 상징인 총독부를 폭파하고 일인들을 폭살하고자 했던 이동환의 거사는 당시로서는 실행 가능성이나 성공 여부가 지극히 낮은 것이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일제 식민통치하의 우리 민족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목숨을 담보할 만큼 진취적인 기상과 담대함이 엿보이는 점에서는 학생운동에서의 전례를 찾기 어렵다.

6·10만세 운동은 3·1운동과 같은 거족적인 결과를 맺지 못했고 또 3년 뒤에 일어난 광주학생독립운동에 비해 그 규모가 작았던 것은 사실이나 그 운동의 중심이 학생들이었던 점, 그리고 학생들의 가슴 속에 독립정신의 불씨가 타고 있었던 것을 증거해 보인 점, 또 3·1운동과 뒤에 일어난 광주학생독립운동과의 가교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그 운동의 성격과 가치는 높이 평가된다.[191]

---

188) 산외면 평사리 척곡(尺谷)출신으로 그의 선조들이 척곡에서 300년 동안 세거했기 때문에 '척곡이씨'라고도 불린다. 현 전국향토문화연구협의회장과 유네스코한국서원협의회장으로 있는 이치백(李治白)의 백부(伯父)다.

189) 민족운동총서편찬위원회, 『학생운동』, 횃불사, 1981, 228쪽.

190) 이동환은 1951년 전주공업고등학교 교감,임실동중학교 교감, 1953년 오수중학교 교장, 고창중학교, 마령중학교, 고현중학교(칠보), 해리중학교 교장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저서로 『純宗年紀』(1965.5~1966.2), 『金石片覽』(1972.12~1973.2), 『一得錄』(1968), 『六十萬歲體驗錄』(1963.5~1964.4), 『私稿錄』(1964.7~1976.8), 『時聞錄』(1958~1967) 등이 있다. (전라문화연구소, 「香山 李東煥의 생애와 유저」, 『전라문화논총』 제1집, 전라문화연구소, 1986, 287~295쪽).

191) 민족운동총서편찬위원회 앞의 책, 6쪽.

Ⅴ. 맺음말

1920년대 가장 활발한 사회운동은 청년운동이었다. 청년회가 처음 조직된 곳은 고부였으며 뒤이어 태인과 정읍에도 조직되었다. 정읍 역시 고부, 태인과 마찬가지로 지역유지 모임의 성격이 짙은 것이었다. 정읍지역은 대자본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탓인지 관변 청년단체는 없었다. 반면에 사회주의 노선을 표방한 산외청년회가 있었다. 산외청년회를 조직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은성천은 1928년 4월 고용주와 함께 산외농조를 조직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벌인 사업들은 근대적인 의미의 사회운동으로서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정읍은 노동운동이 활발하지 못했다. 하지만 전국에서 조선노동공제회 지회 중 가장 먼저 소작인운동을 전개했다는 의의가 있다. 농민운동은 태인과 산외 그리고 신태인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주로 사회주의자와 연결되어 투쟁에서 그 격렬함이 드러나고 있다.

소년운동의 경우, 정읍과 태인, 산외에 소년단이 조직되었고, 보천교에서도 소년단을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성운동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여성들을 위한 교육기관이 없었으며, 사립학교는 물론, 서당이나 강습소마저 없었다.

형평운동은 1923년 5월 23일 이리, 군산, 김제에 이어 전북에서는 네 번째로 형평분사가 창립되었다. 정읍분사는 사상단체를 비롯한 청년단체, 언론단체, 노동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었으며, 당시 정치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언론인과 민족주의자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이 연합하여 지역의 사회운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호남지방 최초의 목사인 최중진과 노동공제회의 간부였던 이익겸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신간회는 함경북도 나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조직되었다. 정읍청년회의 김회진과 이익겸, 최중진, 유연기가 여기에 합류하였고, 형평운동에서는 최성룡이, 노동운동에서는 최중진이 가담하였다. 이 가운데 이익겸은 민족주의자였으며, 최성룡과 유연기는 사회주의자였다.

이밖에 정읍에 본부를 두고 있었던 보천교에서도 민족운동 진영에 진출하고자 했으며, 실제로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는 등 민족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었다. 보천교의 자금이 독립자금으로 활용되었다면 그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1922년 이후 임시정부는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다. 또 독립운동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느낀 김좌진에게 군자금을 조달한 점, 고려공산당에서 '세계 약소민족 회의'에 참가하는 대표들에게 1만원의 여비를 지원한 점, 재만 독립군 정부로 활동했던 정의부에 20만원의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고자 했다는 점 등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

한편 6·10만세 운동 당시 이동환은 산외면 평사리 출신으로 학생 신분임에도 조국의 암담한 현실을 간파하고 운동을 주도했다는 점 또한 높이 평가되어야 할 내용이다.

이상에서 서술한 정읍지역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노동, 농민, 형평, 사상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신간회 주도 인물들의 전력을 살펴볼 때 더욱 그러하다. 특히 주도 인물 가운데 최중진과 이익겸은 노동운동에 종사했으며, 형평운동과 사회운동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였다. 둘 다 정읍청년회의 노동야학과 노동공제회의 간부를 역임하였다. 뿐만 아니라 백정들의 차별철폐운동인 형평운동에 간여했을 뿐만 아니라 신간회 창립 준비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특히 인적 구성면으로 볼 때 청년운동 단체와 노동운동 단체는 신간회의 전위조

직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주의보다는 민족주의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정읍은 한국자생종교인 보천교와 같은 신종교에서 벌인 민족운동이 활발했다고 하는 특징이 있다. 보천교의 민족운동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그렇다고 민족운동에 대한 경향성마저 부인할 수는 없는 일이다.

셋째, 정읍은 사회운동의 시작이 결코 뒤처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한 것은 운동 초기에는 선각적 진보적 지식인들이 정읍의 사회운동을 주도했으나, 이들이 변질되면서 이후에 운동을 주도할만한 내재적인 역량을 갖춘 후속 인물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일제강점기 정읍지방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하였다. 이 글은 선행연구가 없는 가운데 그간 공백으로 남아 있던 정읍지역의 근대사 부분을 일정 부분 메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면담이 가능한 관련 후손들의 인터뷰나 족보에 의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부록〉

비 아세아국 제3과 關機高授 제32743호
대정 13년 11월 26일 관동청 경무국
임시보 제440호 철입명 東敬治?

김좌진 군자금을 얻다

근년에 김좌진은 자금 부족으로 부하를 해산하고 오로지 활동 불능의 상태가 되었으나, 금년 봄 조선 내 보천교 교주 차경석과 연락하여 만주별동대로서 행동하게 되어 지난 10월 초순 교주 대표 某가 영고탑에 와서 금 2만 여 원의 군자금을 줌으로써, 이 돈으로써 구 부하를 소집하고 三盆口에 근거를 두고 포교와 무장대의 편성을 계획하고 동지를 거느리고 동녕현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최진동의 동현 지나 관리 때문에(?) 체포되었기에 두려움을 품고 영고탑에 돌아와 연락자를 구하여 동현 지사의 매수운동을 하고 있다고 함.

김은 종래 독립단의 두목으로서 상당한 인망이 있으므로 그들이 상당의 군자금을 준비하고 부하를 초집하고 있어 다수의 참가자가 있겠으므로 보천교의 배경으로서 행동하려고 하는 그들의 장래는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發送先(발송처)

아세아국장 척식사무국장
조선경무국장
평안북도지사
길림, 하얼빈 각 총영사
하얼빈, 북경상해각내무사무관

별지참조